

아홉가지 컬러가 선사하는 무한한 영감과 일상의 행복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컬러 인사이트

활지혜 지음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색을 접하고 산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익숙한 색들과 만나며 출근을 하는 중에도 다양한 컬러들을 접한다. 차를 타고 도심을 질주할 때,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무실에 들어와 컴퓨터를 켤 때 등등 무수히 많은 색들을 보게 된다.

어떤 기억은 특정한 공간과 연계되는 데 그 중심에는 색이 있다. 장소가 색으로 기억되는 것은 인간의 감각 중 시각이 가장 섬세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것이다.

빨강은 로맨틱하고 매혹적인 색상이다. 소설을 비롯해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작품 속에서 레드드는 다양하게 변주돼 왔다. 레드드는 "유혹과 질투, 배반을 넘어 비로소 찾게 되는 진정한 사랑, 이 모든 감정을 대표하는 컬러"이다.

1900년대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 '물랑루즈'는 사랑 이야기다. 물랑 루즈는 '빨간 풍차'라는 뜻의 카바레로 몽마르트르 언덕에 있다. 영화는 극작



가가 되기 위해 파리에 온 영국 작가 크리스티안과 물랑루즈 최고 대사인 사틴의 만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찬란한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사틴은 새하얀 얼굴과 새빨간 입술로 자신을 배우로 만들어 줄 공작을 유혹한다. 이때의 레드드는 "유혹이나 미혹, 불륜이나 배반, 욕망 등을 표현할 때 주로 블랙과 함께"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크리스티안과의 진실된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레드드는 공작을 유혹할 때와 다르다. "단색 레드드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빨간 입술로 노래하는 사틴"의 모습은 눈부시다. 레드 드레스 또한 달빛 아래 매혹적인 분위기를 발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사람과의 관계에서 레드드는 '가장 천박할 수도 가장 매혹적일 수도 있는 컬러'라 할 수 있다.

컬러가 주는 감정과 의미를 조명하는 '컬러 인사이트'는 매혹적인 책이다. 모두 아홉 가지 컬러가

선사하는 무한한 영감과 일상의 행복을 다룬다. 저자는 황지혜 CMF 디자이너로 LG전자에 입사해 휴대폰,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컬러와 소재를 발굴하고 적용해왔다. 이후 CMI 대표로 국내외 유럽, 중국 회사들과 컬러 및 소재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저자는 컬러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시각 언어로 작용한다고 본다. 컬러는 물감처럼 물리적인 대상에 녹아 있기도 하지만 철학 같은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컬러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온 인류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고유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며,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컬러의 매력이자 제가 컬러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성적이고 중립적인 컬러는 어떤 색깔까. 바로 파랑이다. 파랑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고루 받는 색이다. 드넓은 바다와 같은 데 없이 펼쳐진 하늘은 한결같이 푸르다. 자연을 닮아 쉽고 힐링의 의미도 담고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하늘을 상징하는 블루를 신성시했으며 왕의 장례용 가면과 조각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12세기 가톨릭에서는 그림 속 성모 마리아의 로브 컬러를 값비싼 블루인 울트라마린으로 채색했는데 "마리아의 거룩함과 순결한 미덕을 기리기 위한 합과 동시에 가톨릭의 신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밝고 긍정적이며 무한한 에너지를 품은 컬러는 노랑이다. 화가들이 사랑한 색으로 고흐는 '해바라기'를 비롯해 '노란 집', '카페테라스', '아들의 정신

병원'에 이르기까지 노랑을 사용해 제각기 미묘한 감성의 온도를 전달한다.

이밖에 책에는 '생명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대자연의 시작과 끝이 담긴' 초록,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가장 상큼한 컬러' 주황,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꿈과 낭만의 컬러' 핑크, '모든 것을 담은 가장 광범위하고 철학적이면서도 시크한 컬러' 검정, '순수하고 심플한 무한한 가능성의 컬러' 하얗에 이르기까지 색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CRETA-1만9000원>/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71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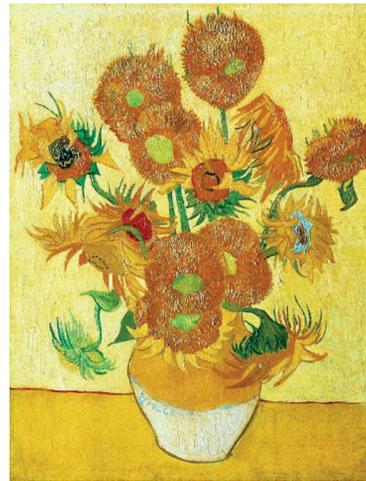


1992



2011

스타벅스 로고 변천사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



조니워커 블루라벨

겨레의 노래 아리랑

김삼웅 지음

우리 조상들은 기별 떠나 슬픔 떠나 '아리랑'을 불렀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손에 손을 잡고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족들은 아리랑을 불렀다. 조선족을 비롯해 고려인, 한인, 외국에 있는 코리안들의 공통된 노래이자 언어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지정된 아리랑은 한국의 시대 독립 운동가들이 근거나 국가처럼 불렀다. 1919년 3·1만세운동 때 시민들은 아리랑을 불렀으며, 조선총독부는 금지곡으로 지정해 탄압을 했다. 전통민요로, 망향가로 우리 겨레와 함께해왔던 것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노랫말이 바뀌어도 본래의 정신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아리랑의 역사와 그 역사 속 아리랑의 이야기를 조명한 책이 나왔다.

역사학자이자 평전 전문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겨레의 노래 아리랑'은 '아리랑 전기'라고 할 수 있다. 음악적 전문가가 아닌 역사학자가 바라본 아리랑은 '아리고 쓰리지만 때로는 힘을 불어넣을' 이야기로 집약된다. 사실 아리랑의 정확한 기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채집된 아리랑은 모두 186종 2722연이다. 그만큼 아리랑의 판본이 많고 거기에 따라 이야기가 전해온다는 것을 말해준다.

저자는 아리랑이 대한민국 대표 민요이고 명실상부한 한국 문화의 상징적 노래라고 본다. 향후 통일 한국의 '국가' (國歌)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상징성과 문화적 독자성, 민족의 동질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책을 감수한 임진택 창작판소리 명장은 "평전 저작가로서 다른 연구들과는 구별되는 시각에서 '아리랑'을 바라보고 평(評)하는 또 다른 관점들을 제시하는 책이라 평한다."



<두레·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너에게 나는

나태주 지음·김예원 역음

'나 오늘 너를 만남으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 말하리/ 온종일 나 너를 생각하므로 이 세상 가장 깨끗한 마음을 안았다 말하리/ 나 오늘 너를 사랑하므로 세상 전부를 사랑하고 세상 전부를 알았다 말하리' (나태주 '고백')

'꽃꽃 시인' 나태주의 모습 시집 '너에게 나는'이 나왔다. 부산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중인 김예원이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던 시인의 시 중에서 '나'가 들어가는 시 171편이 담겼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다시 호명하고 때로 그리워하며 돌아 나오는 이 시집은 '나'를 이루는 모든 '너'들을 위한 고백이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였을까? 무엇으로 존재해야 좋을까?"에 대한 시인의 다양한 대답이기도 하다.

1부 '오늘 너를 만나'에는 너를 만나 행복했음을 노래하는 시들이, 2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은'은 너에게서 떨어져 그리워하는 나날로 채워졌다. 3부 '너는 흐르는 별'은 비로소 너와의 여정을, 4부 '사랑이여 조그만 사랑이여'는 너와 내가 결국 '우리'가 되는 글을 모았다. 긍정적인 언어와 배려 깊은 우리를 행복에 다다르게 해주거나 생각한다는 역사 김예원은 '당신이 오늘에 꽃이예요'와 미니시집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등을 나태주 시인과 함께 펴내기도 했다.

"시인님의 시에는 '나'가 빈번히 등장하지요. '너'를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사회를 공존과 포용으로 물들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사랑이 담백 담긴 시인님의 이 시들이 독자님의 마음에 스며들어 사랑의 증폭기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책을 엮습니다."

책 표지 그림은 일러스트레이터 '오아몰 루(Oamul lu)'가 그렸다.



<열림원·1만5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모호한 상실

폴린 보스 지음·임재희 옮김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잃는 경우 사람들은 극한의 고통을 겪는다. 마음을 쏟던 이가 더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워 한다. 그래서인지 이별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등 이별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승화시킨다.

미국 미네소타대 가족사회학 명예교수이자 위스콘신대에서 교수로 일해온 폴린 보스가 최근 '모호한 상실'을 펴냈다. 저자의 오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만연한 상실 문제를 규명하는데, 특히 사랑하던 이를 예고 없이 잃는 애매모호한 이별에 주목한다.

저자는 재난이나 참사로 누군가를 떠나 보내면 그 대상은 육체만 소멸한 것이라고 말한다. 불현듯 찾아오는 작별은 남겨진 이들에게 온전한 상실경험을 주지 않는다. 그저 '통제 불능 상황'이나 '이별할 수 없는 이별'에 직면한 것인데, 책은 이처럼 준비 없는 고통을 겪는 이들이 '응고된 슬픔'을 갖고 있다고 표현한다.

"우리의 절대적인 확실성에 대한 갈망은 심지어 우리가 영원히 견고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믿는 관계들 속에서도 거의 충족되지 않는다"

그 어떤 관계라도 유한성의 굴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상실이란 누구에게나 전보 없이 찾아올 수 있어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산다. 그럼에도 저자는 인간이 '절대적 확실성'을 무한히 갈망하는 만큼 황망한 이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예기치 않은 상실을 겪은 한국사회에도 화두로 다가온다. 상실의 아픔이 퍼져 있는 이 시대에 저자의 경험과 방법론이 고통을 호기롭게 이겨내는 실마리가 됐으면 한다.



<작가정신·1만6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